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2023년도  
제1호

# 사랑의 메<sup>+</sup>아리



교황청 재단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http://www.churchinneed.or.kr) ▼  
전화 02-796-6440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mailto: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기도, 자선, 단식:  
사라지지 않는 보물을  
위한 세 가지 투자”

프란치스코 교황,  
2019년 3월 6일,  
재의 수요일 미사 강론에서

그리스도인 거주 지역인 레바논 베이루트의 바다로(Badaro) 거리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 중 제 14차에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있는 토니 신부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재의 수요일에 시작하는 사순시기를 맞이하여 교황청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 기구 ACN은 올해 나이지리아의 고통받는 교회를 위해 특별한 사순 캠페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캠페인은 나이지리아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처한 곤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목표입니다. 이들은 수년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의 테러를 겪었는데, 이제는 극단주의자와 범죄 집단의 잔혹한 공격에 새로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불타고, 성직자와 수도자, 신자들이 학대와 납치를 당하고 살해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탈출해서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캠페인으로 많은 후원금을 모아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나이지리아 교회를 도울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큰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수난을 통해 당신의 교회에 마련하신 '은총의 자산'에 대한 우리 몫이 커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갚고 우리에게 막대한 재물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숨겨진 보물,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진주를 찾아 손에 넣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차라리 자신의 재산과 소득에 의지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찾아내는 진정한 공로를 어떻게 쌓아가는지 고통받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들은 무한한 하느님의 사랑인 십자가의 은총 보물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머물고, 하늘의 온갖 은사로 풍요해지도록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마이두구리교구의 존 바케니 주교가 이를 잘 입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힘을 얻습니다. 물론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묻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십자가 수난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증언으로 다른 이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울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세상이 십자가의 힘으로 치유를 얻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은총의 자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가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에도 나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콜로 1,24)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얻으신 사랑의 힘과 풍요로움을 아직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죄와 죽음의 속박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우리는 참으로 놓치고 있습니다. 기도, 영성체, 용서, 솔직한 회심의 결단, 사랑에서 우려나온 포기, 봉사, 헌금을 통해 우리는 위대하고 거룩한 ‘십자가 캠페인’에 헌신하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보물을 예수님과 함께 모읍시다.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기원합니다.

ACN 지도신부 마틴 마리아 바르타 Fr. Martin Maria Barta



**“사랑에서 우리나온 포기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보물을 모읍시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이 강력한 약속은 교회에 내리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수도자와 성직자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키는 걸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ACN 프로젝트 협력자들이 항상 전해주는 바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사헬 지대, 그 외 여러 위기 지역에서 국제기구나 인도주의적 비정부 기구(NGO)들이 이미 철수

한 상황에서도 교회와 관계 기관들은 사목적, 사회적 사명을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몰락을 막고, 국민의 존엄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성은 오로지 국제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ACN은 늘 이에 대한 요청과 함께, 억압당하고 박해받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사람들 곁을 지키면서 그들의 운명을 위로해주는 교회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 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 충실함, 너그러운 후원 덕분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며!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 1 ACN의 긴급 지원 알리기



ACN은 알레포 교회의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시리아의 지진 피해 그리스도인들을 돕고자 합니다.

## 1 최악의 지진 발생

2023년 2월 6일 새벽 튀르키예 남동부 가지안테프 인근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뒤 같은 날 오후 규모 7.5의 추가 지진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강도 4 이상의 여진만 100회 이상 이어지며 튀르키예 남동부와 이와 접한 시리아 북서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 2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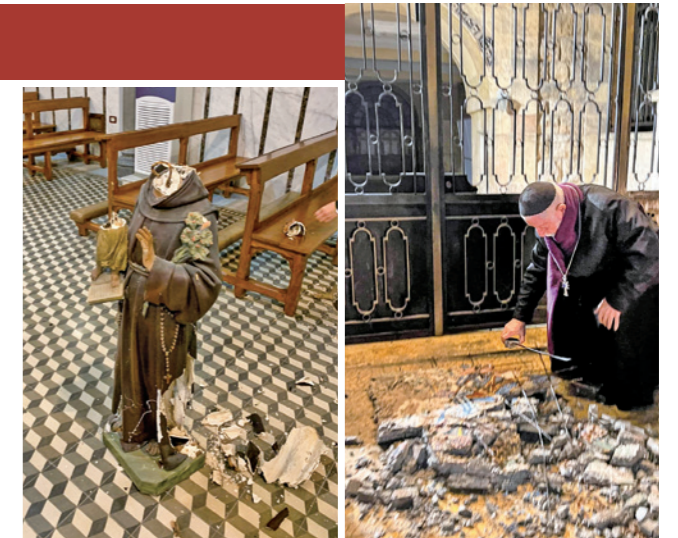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9일(현지 시각) 2만1000명 이상 시리아에서는 최소 3377명이 사망했고, 5245명이 다쳤습니다. (CNN 발표)



## 3 시리아의 알레포와 라타키아의 피해

“내전에 이어 지진까지 겪고 있는 시리아는 더 비참합니다.”

시리아 북서부 알레포와 하마, 라타키아 등의 도시가 있는 이 지역에는 국제사회의 구조, 원조의 손길이 거의 닿지 못합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는 2021년부터 이 반군 세력이 장악한 이 시리아 북서부에 외부 구호단체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국경 통로를 한 개만 남겨 놓고 모두 끊었기 때문입니다.



# 2 기도하기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1코린 12,26)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이사 40,1)



## 우리는 튀르키예-시리아 형제들의 고통에 기도로 함께해야 합니다.

“지진이 국제 사회와 모든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을 열어 시리아를 돕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리아의 모든 이들이 절대적인 절망과 고통의 상태에 있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애타게 가족과 친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그리스-멜리트 가톨릭 교회 시리아 홀스 대교구장 장 압도 아바치(Jean Abdo Arbach) 대주교**

# 3 행동하기

“인도주의적 지원의 입국을 허용해야 합니다.”

ACN 시리아 알레포 협력 파트너인 앤 마리 수녀는 ACN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에는 전쟁, 그다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곧이어 서방국가들의 제재, 그리고 이제는 지진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가난합니다. 그들은 음식을 사 먹거나 요리하는데 필요한 기름, 곡식을 살 돈이 없습니다.”

많은 서구 국가와 지역 사회는 이미 원조를 약속한 상태이지만 시리아인들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앤 마리 수녀도 함께 간청하며 이렇게 전했다. “시리아에 대한 서방 제재를 해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제재 해제를 위해 기도해줄 것을 후원자에게 요청합니다. 유럽의 강대국들과 대화를 해주십시오.”



ACN 수석 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Thomas Heine-Geldern) 또한 긴급 구호 자금 이체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다. “시리아의 고통받는 사람들 특히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는 그들의 이름으로 현행 시리아에 대한 금수조치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의 제재 면제를 승인하는 기존의 국제 법 제도의 이행을 간청합니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ACN의 긴급 지원

교황청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은 알레포와 라타키아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물품은 시리아 중부 홀스나 남부 다마스쿠스에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 1 긴급 구호 물품 지원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통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리아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긴급 구호 물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긴급 구호 물품 담요와 침낭, 어린이들을 위한 우유, 아기와 어르신들을 위한 기저귀, 의약품 등**



### 2 집수리 지원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ACN은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집을 수리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600가구 정도의 피해 상황을 파악중입니다.)

**집수리 문, 창문 수리, 난방, 수도 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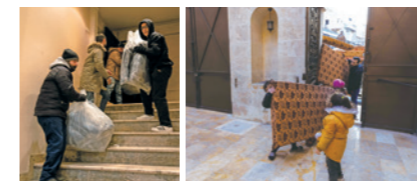


### 3 교회 지원

사람들은 현재 안전한 교회와 수도원 등으로 피신해 있습니다. 지진으로 교회 건물에도 크고 작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우선은 사람들을 돌보며, 교회의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다음 주 이후 조사와 평가를 거친 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교황청 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인 고통받는 교회돕기(ACN)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 참사로 인하여 비극 속의 비극을 겪고 있는 시리아 북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 50만 유로를 긴급 지원

**1** 이재민 가족들에게 담요와 음식 등의 생필품을 제공하기 위해 라타키아의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 수도회)와 협력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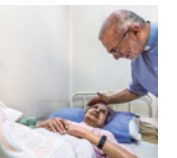


**2** 알레포 지역의 메키타리스트 아르메니아 가톨릭 교회(아르메니아 사도교회)와 함께 이재민 가족들에게 의약품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영아와 유아들을 위한 우유 지원, 식수지원, 위생 관련 물품 지원, 난방기구 지원 포함),



**3** 말씀 선포회와는 이재민의 심리 치료를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4** 빈첸시오 아 바오로 회와는 어르신 돌봄 프로젝트를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이재민들이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ACN의 긴급 지원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303-232450

**예금주** (사)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관련 문의** 02-796-6440, 010-7475-6440



# “폭력과 가난에도 어디서나 느껴지는 기쁨”

인터뷰



다마래의 난민보호소에서

**ACN 프로젝트 부서의 나이지리아 담당자인 킨가 폰 쉬어스테트가 2022년 11월,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를 방문했습니다.**

## ➔ 나이지리아가 ACN의 사순절 캠페인의 중심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캠페인을 통해 나이지리아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지원하고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나이지리아는 인구 2억 6백만 명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이 대략 반반씩 나누어져 있으나 지역적으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이미 극심한 긴장감과 수많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23년 2월에 치르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긴장 분위기는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 ➔ 나이지리아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특히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북부 지역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수 십년 간 극단적인 이슬람 무장 단체 보코하람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곳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그사이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주로 이슬람 유목민으로 구성된 풀라니족의 폭력적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중무장한 극단주의 단체도 있습니다.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이종으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혐오로 인한 위협이고, 다른 하나는 인질들의 몸값을 노리는 납치가 유용한 ‘사업 모델’로 여기는 테러 단체들로 인한 위협입니다.

## ➔ 나이지리아 여행이 위험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이지리아로 떠나기 며칠 전, 미국이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원조기구 직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때 잠깐 고민했지만, 그래도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아부자의 대주교님께서는 다른 기구들이 철수하는 바로 그 순간에 ACN이 와주어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적인 원조뿐만 아니라 그들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으로 현지 교회와의 연대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 ➔ 무엇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까?

교회들이 평일에도 꽉 차 있더군요. 위험한 지역에서도 말이지요. 신자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테러범들은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목숨도 앗아갈 수 있지만, 우리 신앙만큼은 앗아가지 못합니다.” 폭력과 가난 한가운데서도 이들에게 신앙은 큰 힘이 되며, 어디서나 기쁨이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박해를 당하는 지역에서 목숨과 신체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제와 수도 성소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 ➔ 나이지리아 교회에 특히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직자와 여성 수도자들이 트라우마를 겪는 폭력 피해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을 받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도움은 성직자와 수도자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직접 겪은 나쁜 경험을 극복하고,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전하는 참혹한 상황을 이겨내고 영적인 힘을 충전할 수 있지요.

또한 실항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와 수많은 사제 성소자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

## 신학생들

# 그리스도와의 사랑

“저는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고,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지고 싶습니다. 가톨릭 사제가 되는 것 말고는 원하는 게 없어요.” 또는 “저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고 싶어요.” 사제가 되고 싶은 이유를 묻자, 나이지리아 신학생들이 한 대답입니다.



마이클 응나디(18세),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

이 신학생들은 결심을 통해 큰 용기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사제들이 납치와 살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면 친척들까지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눈물을 쏟으시며 겨우 승낙하셨어요.” 한 신학생의 고백입니다.



야외 수업: 신학생들로 꽉 찬 나이지리아 신학교!

18세인 신학생 마이클 응나디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죽음으로 지켰습니다. 2020년 1월, 그는 다른 신학생 3명과 함께 카두나의 신학교에서 납치되었습니다. 3주가 지나서 동료 인질들은 풀려났지만, 마이클 응나디는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체포된 살해범에 따르면 마이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살해범에게 ‘악의 길’을 버리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마이클은 겨우 열여덟 살의 나이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많은 나이지리아인에게 마이클 응나디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벌써 그에게 전구를 청하고, 그가 곧 시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이클과 같은 소코토교구 출신의 마태오 하싼 쿠카 주교는 마이클의 장례미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 이제 막 사제가 되는 길을 시작하면서 순교의 면류관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

니다. 대사제이신 예수님께서 마이클이 지상의 제대를 향해 오르기도 전에 그를 천사들 곁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이클의 두 손이 성작을 들어 올리기도 전에 그는 높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가 흘린 피로 우리나라를 치유할 수 있다면, 그의 살해범들은 결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나이지리아에서는 폭력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소를 향한 은총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마이클 응나디와 같은 소코토교구 출신의 젊은이 39명이 현재 신학교 세 곳에서 사제직을 준비하며 수학 중입니다. 올라교구에는 고통받는 국민에게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신학생들이 47명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나이지리아의 신학생 2,954명의 양성에 26억 9410만원 이상을 후원하였으며, 이번에도 다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진 이 용감한 젊은이들에게 누가 손을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



◀ 아부자의 대신학교를 방문한 킨가 폰 쉬어스테트  
▲ “와서 주님께 환호하세요.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 올리세요.”(시편 95,1)



◆ 치유

## 심각한 상처를 입은 영혼들을 위한 원조

나이지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심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이들은 보코하람이나 테러범들에게 납치되고,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추방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모와 자녀 또는 배우자들이 잔인하게 살해되고 집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끔찍한 기억들이 계속 이들을 엄습합니다. 악몽과 공황발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경직된 채 누구와도 말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트라우마 내상을 깊이 입은 거지요.

ACN의 도움으로 마이두구리교구에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보살피는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20명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22세의 자나다 마르쿠스입니다. 아버지가 칼로 잔혹하게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한 뒤, 자나다의 삶은 무너져내린 것 같았습니다. 트라우마 센터에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고 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나다가 말합니다. “잊고 용서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했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영적 어려움을 겪는 무수한 폭력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이런 도움의 기회는 달궈진 바위에 떨어지는 한 방울 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ACN은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사제와 여성 수도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영적, 심리적 상처를 심각하게 입은 사람들의 경우, 자선과 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사제와 여성 수도자들의 심리치료와 영적 지도를 위한 추가 교육에 이미 장학금을 스무 차례 정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문지식을 갖춘 영적 지도자들은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2년의 추가 교육에 약 3100만원이 필요합니다. 누가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사제와 수도자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들 중에도 끔찍한 일들을 똑같이 겪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2022년만 해도 최소 32명의 나이지리아 사제와 여성 수도자들이 납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얼마 후에 풀려났지만, 이들이 겪은 영적, 심리적 시련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들이 끔찍한 경험을 극복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되찾아서 다시 기쁨 속에서 두려움 없이 하느님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

아버지 살해범을 용서한 자나다 마르쿠스(22세)

# 희망과 두려움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다소 좋아져 재건이 가능한 형편이지만,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일부 교회 시설에는 경찰 보호까지 필요합니다

마이두구리의 올리버 다세 도에메 주교는 보코하람의 철수를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주교는 예수님이 검을 건네주시자 그 검이 목주로 변하는 환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몇 번이고 하셨습니다. “보코하람은 이제 없다.” 그 후 주교는 특히 테러 피해를 심하게 입은 자신의 교구에 목주기도를 끊임없이 열심히 바치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은 폭력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본 곳 중에는 우루 구데의 성 디모테오 성당도 있습니다. 이 성당에 속한 건물 세 채가 모두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제가 목을 곳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웃 본당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본당 신부는 먼 길을 힘들게 오느라 신자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당 신자들은 큰 희생을 치르며 소박한 집을 한 채 마련했고, 그 결과 본당 신부는 신자들과 가까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활발히 꽃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붕괴 위험이 있고 낡은 건물들을 다시 지낼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27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테러로 인하여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보낸 본당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누가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특히 납치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납치의 원인으로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 대한 혐오뿐만 아니라 교회에 몸값을 요구하는 범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수도원과 신학교에 보호벽이나 보호 울타리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방해받지 않고 드나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특히 여성 수도자들이 납치, 약탈, 성폭행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코토교구의 도미니코회 수녀들이 보내온 글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일반적인 수단도 이용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작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필요한 경우 보호 울타리와 그 밖의 안전대책 마련에 재정 지원을 계속하고자 하며, 여러분의 아낌없는 도움을 바랍니다. 🙏**



◀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희망을 짓는 사람들: 재건의 시작!  
▲ 올리버 다세 도에메 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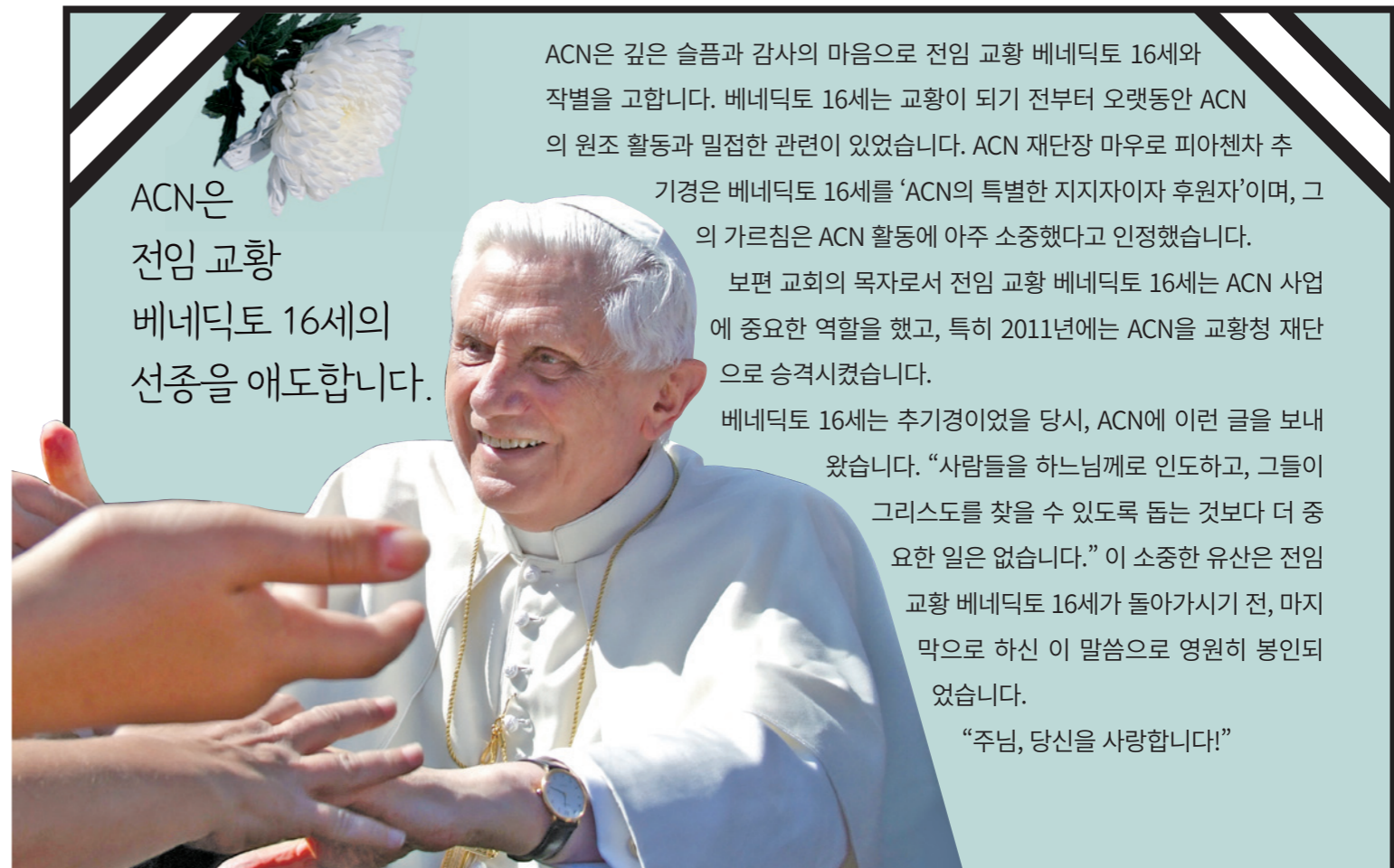
# “양성자들을 위한 소중한 도움”

2022년 7월, 신학교 양성자들을 위한 한 달 동안의 특별 교육 과정이 로마에서 서른 번째로 열렸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특히 아프리카를 포함한 11개국에서 65명의 사제가 이 과정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책임 있는 사명과 관련한 주요 지식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에서 온 형제들과 유익한 교류, 보편 교회에 대한 심오한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삼종기도 때는 교황을 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참석자를 대표해서 나이지리아의 엠마누엘 마이가리 신부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이 교육 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와 특전을 베풀어주신 모든 후원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양성자들이 교회를 위해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려지기를 기원합니다!” 🙏



ACN은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선종을 애도합니다.

ACN은 깊은 슬픔과 감사의 마음으로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는 교황이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ACN의 원조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ACN 재단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은 베네딕토 16세를 ‘ACN의 특별한 지지자이자 후원자’이며, 그의 가르침은 ACN 활동에 아주 소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보편 교회의 목자로서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ACN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2011년에는 ACN을 교황청 재단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베네딕토 16세는 추기경이었을 당시, ACN에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사람들을 하느님게로 인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소중한 유산은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으로 영원히 봉인되었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 나이지리아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교황청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id to the Church in Need)는 2023년 사순 시기 동안 이슬람 극단주의의 무자비한 공격 속에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나이지리아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십자가의 길  
신청



## 나이지리아 남부와 중부에서 발생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격



나이지리아 그리스도인  
실향민  
**약 200만 명**



2021.1~2022.6  
살해당한  
나이지리아 그리스도인  
**7,600명 이상**

“  
보코하람(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는 바로 신앙입니다.  
어떤 악도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나이지리아 마이두구리 교구장 도에메 주교 ”

**나이지리아의 교회가 이 박해속에서도  
굳건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영적, 물질 지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하기

🏠 [www.churchinneed.or.kr](http://www.churchinneed.or.kr)

☎ 02-796-6440,

010-7475-6440

📍 서울 중구 명동길80,  
가톨릭회관 337호



자세한 내용 확인  
ACN 홈페이지

